

다산포럼

중국 기행에서 만난 인물들



김 태 희
다산연구소 소장

광둥(廣東, 광둥)성에 간 까닭은 그곳이 따듯해서이다. 송재소 교수의 중국 인문 기행을 거울을 하면서, 강강을 따라 서진하던 코스는 남쪽으로 선회했다. 광둥성은 영상 20도 정도라 따뜻했다. 중국 남쪽의 관문인 광둥성은 성도가 광주(廣州, 광저우)이고, 홍콩·마카오가 인접해 있다.

이번 기행지에서 접하게 된 인물이 임칙서(林則徐, 린찌슈, 1785~1850) 홍수전(洪秀全, 홍수취안, 1814~1864) 강유위(康有爲, 강유웨이, 1858~1927), 양계초(梁啓超, 량치차오, 1873~1929) 손문(孫文, 손원, 1866~1925) 등이었다. 중국 근대 변혁기의 주요 인물들이었다.

광둥성 출신들 변혁의 주역

기행 3일째 찾았던 아편전쟁 박물관의 주인공은 임칙서였다. 그는 복건성 출신이지만, 광둥성에서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그는 강직하고 청렴한 관원이었다. 그는 아편 엄금을 주장했다. “아편으로 인해 수십 년 뒤에는 중원에서 적을 막

는 병사가 없을 것이며, 군비에 쓸 은(銀)도 사라질 것이다.”

임칙서는 흠차대신으로 임명되어 광저우에 갔다. 그는 중국 아편 상인에게 단호하게 조치했지만, 외국의 아편 상인에게는 신중했다. 영국 여왕에게 아편의 폐해를 들어 도의로써 호소했고, 상인에게 아편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궁지에 몰린 아편 상인은 일단 아편을 내놓았다. 임칙서는 아편 2만 상자(237만근)를 후먼(虎門)에서 20일간 불태웠다. 그 역사적 장소에 건립된 박물관의 그림과 동상이 말하는 것처럼, 임칙서는 정정당당했고, 또한 승리한 듯 보였다.

박물관 안의 한 면에는 영국 의회에서 클레드스톤(William Ewart Gladstone, 1809~1898)이 연설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가 당시 아편 거래를 위한 전쟁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도의의 편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굴복시켰다. 청 왕조는 중국을 지키지도 임칙서를 지켜주지도 못했다. 도의의 입장이 아니었다.

청 왕조의 중국이 기울고 있을 때, 홍수전이란 인물이 등장했다. 몇 차례 과거에 낙방한 그는 스스로 예수의 동생임을 자처하고 배상제회(拜上帝會)를 결성했다. 그의 군대는 순식간에 남경을 함락하고 중국을 뒤흔들었다. 이른바 ‘태평천국의 난’이었다. 홍수전은 광저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 기행 첫날 방문한 홍수전 옛집이 많아서 수달이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문들이 태평천국의 난을 높이 평가

했다. 그러나 홍수전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에는 국량이 작았다. 리더십의 한계와 내부 분란으로 무너졌다.

이제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강유위와 양계초가 길을 제시했다. 모두 광둥성 남쪽 출신이었다. 기행 5일째 찾아간 광저우의 구씨서실(邱氏書室) 안에는 강유위가 쓴 ‘만목초당’(萬木草堂)이란 편액이 걸려 있었다. 일찍이 서양 문물에 관심을 가진 강유위가 이곳에서 강학을 하며 양계초와 같은 제자를 양성했다. 이곳 표지판에는 만목초당을 ‘무술변법혁신지’(戊戌變法策源地)라고 소개했다. 무술변법의 계획이 시작된 곳이란 뜻이다.

강과 양의 변법자강운동은, 청일전쟁의 패배로 한계를 드러낸 중체서용 운동을 대신했다. 그러나 개혁에 돌입한 지 103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른바 ‘100일 유신’(무술변법)이다(1898). 입헌군주제 개혁은 그나마도 시행되기 힘들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제 혁명을 통한 공화제 수립이 중국의 목표가 되었다. 민족, 민주, 민생의 세 가지를 주장한 손문이 지도자로 부상했다. 그 또한 광저우에서 가까운 향산(香山: 현재의中山) 출신이었다. 광저우에 있는 손문의 기념사를 지켜주지도 못했다. 그의 군대는 순식간에 남경을 함락하고 중국을 뒤흔들었다. 이른바 ‘태평천국의 난’이었다. 홍수전은 광저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 기행 첫날 방문한 홍수전 옛집이 많아서 수달이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문들이 태평천국의 난을 높이 평가

광둥성의 인물들이 중국의 길을 찾아

분투할 때 ‘나쁜 놈’으로 거명되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원세개(袁世凱, 위안스카이, 1859~1916)였다. 하남성 출신인 그는 변법개혁운동을 지지하는 듯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했다. 손문의 혁명과정에서도 황제가 되려는 권력욕에 중국의 나아가길 방해했다. 그가 임오관, 감신정변 무렵에 조선에 와서 자행한 방자하고 무도하며 시대착오인 행위를 더 말해 뒤흔들었다.

지도자들 도의가 있었으면

중국 근대에 광둥성에서 출현한 인물들을 보면서, 시대적·지리적 환경이 인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새삼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간은 홀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고, 함께 만들고 이어갈 수 있는 생각이다. 아무리 국가의 일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긴다.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다. 나라 안팎의 뉴스를 장식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둘 떠오르니 마음이 편치 않다.

한 가지 더. 역사 속 옛사람을 만나면서 개인의 품성과 자질을 생각해 본다. 큰 역사적 흐름 속에 일개인의 선과 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랴. 하물며 선악이란 것도 일도양단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사람이란 도의와 양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아무리 국가의 일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긴다.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다. 나라 안팎의 뉴스를 장식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둘 떠오르니 마음이 편치 않다.

NGO칼럼

수달이 사는 광주천, 생물 다양성 회복의 지표



박 경 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

용연마을부터 영산강과 합류하는 지점까지 광주천의 전 구간에서 89점의 배설물과 3점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번 조사에서 수달의 흔적이 매주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광주천이 단지 이동 통로가 아닌 수달이 잠자리를 가지고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광주천은 무등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 통로로 무등산에 살고 있는 수달이나 황룡강, 영산강에 살고 있는 수달의 이동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수달이 광주천에서 자고 먹고 쉬면서 살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수달은 하천을 따라 살아가는 동물이다. 보통 10km의 활동 반경을 가지는데 수달 서식지는 하천을 따라 일차원적인 직선 형태를 갖는다. 다른 동물들이 가로×세로로 면적 단위의 공간을 이용하는 것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달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달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서식 개체수

는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는 것도 단지 물길만 따라 서식하는 수달의 특성 때문이다.

이처럼 물길을 따라 선행으로 서식하는 수달은 다른 세력권을 가진 수달 집단들간의 충돌이 더 잦을 수밖에 없다. 서식공간이 좁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하고 새끼가 자라 독립을 하기 위해서도 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어 고립되거나 인공 시설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립은 바로 멸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달은 하천의 최고 포식자로 수생 생태계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 따라서 수달은 그 지역의 수환경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환경 지표종이다.

광주천에 수달이 산다는 것은 광주천의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이다. 하지만 광주천으로 들어오는 지류 하천이 거의 대부분 복개되어 있고, 물길은 직강화되어 있어 수달이 숨거나 서식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또

한 현재 광주천의 모습이다.

무등산에도 수달이 살고 있다. 무등산에 사는 수달이 광주천으로 내려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광주천 상류 아파트 건설이나 인공시설물 등 여러 이유로 수달이 내려오지 못한다면 고립과 근진 교배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천 수달 조사를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유전자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무등산에 사는 수달과 광주천에 사는 수달이 같은 종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한편, 무등산에 살고 있는 수달이 광주천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유전자 조사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 수달이 무등산에서 또 광주천에서 고립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수달이 사는 광주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무등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물 다양성의 핵심축인 광주천이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공간이자 이동 통로가 될 때 광주의 생물 다양성은 증진될 것이다.

기 고

풀뿌리 마을 운동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류 영 준
광주시 환경정책과장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웃 간의 믿음과 배려가 존재하는 마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이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마을일 것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의 이념과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제안을 통해 정책 목표와 이념을 구축하고 학습조직·네트워크를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조직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동적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또한 주민 스스로 마을의 리더로 거듭나서 주거 환경 개선, 생태 문화 환경 복원을 목표로 마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대대손손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실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한 실마리를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내집앞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찾아보려 한다. 이 사업은 지역 공동체의 희망을 일구며 마을을 가꾸는 실천 사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사실 그동안 대도시에서는 마을을 가꾸는 일이 주민들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는데, 이는 급격한 도시화, 경쟁심과 무관심 등 사회적 요인과 함께 답장 하나를 사기에 두고 이웃과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내 집 앞 마을 가꾸기’ 사업이 ‘생태 문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발전하면서, 주민들은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가는 과정들을 겪었다. 그런 와중에 있고 지냈던 주민들 간 지역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내 마을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에 ‘생태 문화 마을 만들기’사업에 IT기술을 접목한 ‘다(多)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가 지역과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좋은 사례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가치 그린’은 시민이 직접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고(다가치)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다같이 문제를 해결하여(다같이) 녹색도시 동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Green) 브랜드다.

쌍방향 환경 행정 정보 제공과 동네 관계망을 통한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취지의 다가치 그린 모바일 앱 서비스 구축 사업이 2015년 정부 브랜드 과제로 선정되었고,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앱을 활용하여 동네 만들기 사업을 공모해 오고 있다.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쓰레기 투기 지역을 신고하거나, 마을 환경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천 활동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를 모아 사립비로 바꾼 뒤,

마을과 학교 등에서 썬치꽃밭, 텃밭 가꾸기, 벽화 그리기, 빗물 저금통, 도시 숲 등 동네 환경 개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와 광주 지속 가능 발전 5차 의제 과제를 실천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개 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힘입어 금년에는 환경, 경제, 사회, 도시재생 등 지속가능한 광주 만들기 실천 의제가 마을 속에서 뿌리내리도록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를 늘려 공모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생활 속 자원순환에서부터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까지 동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대단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다가치 그린 모바일 앱 고도화를 추진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콘텐츠를 강화하여, 마을 환경 개선에 맞춰졌던 초점을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활 실천 운동으로 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올해도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을 통해 배려와 나눔이 있는 살고 싶은 마을들이 곳곳에서 꽃피워져 광주 공동체 미래 세계의 행복한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社 說

안갯속 지방의원 선거구 확정 서둘러야

지방선거가 꼭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의원 선거구와 정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의 선거구 확정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입지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는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토대로 선거구 6개월 전까지 정하게 돼 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확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3일로, 벌써 두 달이나 지난 셈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도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연쇄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막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최대 쟁점은 광역의원 정수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증원 등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에 따른 여야 충돌로 국회가 멈추면서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다음달 2일부터 광역의원과 구·시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한다는 점이다.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느 지역에서 표발을 다져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아우성이다.

국회의 선거구 확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6년 4·13 총선과 2014년 6·4 지방선거 때도 지연으로 인해 선거 관리에 애를 먹었다. 일정에 쫓기면 선거구가 당리당략에 따라 기형적으로 변경되는 게리맨더링도 우려된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확정안을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노후 주차기 교체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광주 시내 많은 건물들의 기계식 주차기가 노후돼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철거를 하고 싶어도 철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법정 주차 대수를 지켜야 하는 현행 법규 때문이라는데, 대책이 시급하다.

광주시 서구 금호지구에 5층 건물(연면적 1000㎡)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서구청에 주차기 철거 민원을 냈다가 퇴짜를 맞았다. 기계식 주차기(4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횡렬 3개면짜리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민원을 구청이 불허한 것은 법정 주차대수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건물 신축주들은 주차장법 19조 3항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2단식 주차기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기계식 주차기 대부분이 설치 10년이 넘어 노후한 데

다 고장이 잦고 부식이 심해 사실상 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부 건물주는 이런 점을 고려해 기계식 주차기를 없애고 대신 일반 주차장을 조성하려 해도 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계식 주차기는 안전성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규정하는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2단식 주차장치 5개 종류 모두를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광주시나 각 구청 역시 주차면적 확보 수칙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주차장 조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주차면적을 얼마나 확보했다는 통계보다는 실제 쓸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無 等 鼓

눈은 한 구름 속 미세한 물방울이 응결돼 내리는 자연 현상이다. 똑같은 눈이라 할지라도 보는 이가 서 있는 장소와 처한 상황에 따라 제각각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겨울은 인생의 결에 따라서 시인들의 묘사도 저마다 다르다.

먼저 백석(1912~1996)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찾아 읽어 본다. “가난한 내가 / 아름다운 나라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폭풍 눈이 내린다...” 한밤중에 함박눈이 쏟아지는 정경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김홍근(59)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눈 내리는 날에

로 투영돼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지난 9일 개막해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북한의 참가로 인해 곧 전쟁이 터질 듯 베팅 끝으로 치닫한 한반도 위기도 평화 모드로 바뀌었다.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차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는 남북한 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경색된 남북한 대치 국면에 해빙 물꼬를 트는 ‘타빙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창의 눈이 모든 갈등을 덮더니, 또 녹이고 있다.

/송기태 예방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기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편물 발행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